



나날이 어린이 신문

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돈을 준대요



서울시내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

'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.' 요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이런 글을 본 사람 있나요. 7월 21일부터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데, 그게 바로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이에요.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.

집집마다 상황에 따라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까지 줘요. 가령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도)에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가정은 1인당 15만 원을 주죠. 식구가 세 명이면 총 45만 원을 받겠네요. 수도권이 아닌, 사람이 적은 지방에 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집은 1인당 45만 원을 받아요. 또 9월에도 10만 원씩 더 준대요.

돈을 주는 이유는 '민생회복'을 위해서예요. 민생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을 말하는데, 돈을 못 벌어서 먹고사는 게 어려워졌다는 국민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나눠줄 테니 먹고 싶은 것도 먹고, 사고 싶은 것도 사는 데 돈을 쓰라는 거죠. 돈을

쓰는 것을 '소비'라고 해요. 그래서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인 거예요.

소비는 나라 전체에 도움이 돼요. 내가 식당에서 돈을 쓰면(소비를 하면), 식당 주인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시장에서 돈을 쓸 수 있고, 시장 상인도 돈을 벌었으니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죠. 이렇게 돌고 돌아 모두 돈을 벌고 돈을 쓸 수 있는 거죠. 반대로 내가 식당에서 돈을 안 쓰면(소비를 안 하면), 식당 주인도, 시장 상인도, 편의점 사장도 돈을 못 벌어요.

하지만 소비를 함부로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아요. 돈을 아무 데나 막 써버렸다가는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없어서 곤란할 수 있잖아요. 나라 역시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해요.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나눠줬다가 나중에 나라가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.

* 신문기사를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.

문해력 쏙 

오늘의 단어

상황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나 형편

수도권 수도를 중심으로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들

곤란하다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렵다

독해력 쏙 

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은 무엇을 하라고 주는 걸까요?

1. 돈을 모으라고
2. 물건을 팔라고
3. 먹고 사고 하라고
4. 집을 팔라고

독해력 쏙 

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?

1. 사람들이 쿠폰을 싫어해서요
2. 나라 돈이 줄어들까 걱정돼서요
3.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서요
4.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요

사고력 쏙 

여러분은 이 쿠폰을 어디에 쓰고 싶나요? 왜 그렇게 생각 하나요?